이해준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새로운 가치를 찾는 즐거움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여행

오르비에또 절벽과 마을. 성벽 위쪽에 구시가지가 있고, 아래쪽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절벽 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다.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희망을 찾아 나선 가족의 세계여행

꽃샘추위가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 해도 봄은 온다. 생명을 다한 것처럼 겨우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찬바람과 눈보라를 맞던 나무도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새날은 찾아온다.

우리 가족이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섰던 것은 바로 그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필자와 아내는 물론 당시 고교 2학년과 대학 2학년이던 두 아들 모두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기 위해 직장과 학교를 중단하고 여행에 나선 것이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상에 치여 멀어져만 가던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주요한 목적이었다.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필자와 아내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었고, 두 아들에게는 뚜렷하지 않은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것이 여행의 목표였다.

하지만 과연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것인가. 터키와 그리스의 고색창연한 역사·문화 유적을 돌아보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희망을 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위기에 놓인 삶에 햇살을 줄 구체적인 희망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러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그리스를 떠나 야간 페리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고대 로마를 건설한 전설적인 로물루스 형제의 조상 아이네아스가 3,000여 년 전 건넜던 그 항로라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도 바다를 건넜다.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의 나폴리와 폼페이에서 시작해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까지 주요 유적지들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다 만난 것이 중부의 소도시 오르비에또와 아시시였다. 한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름답고 한적한 소도시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던 구체적인 희망의 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슬로 운동의 본거지 오르비에또

오르비에또는 로마에서 북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다. 도시라기보다는 '타운(town)'이라고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곳이다. 1999년 '슬로 푸드(Slow Food)' 운동을 도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슬로 시티(Slow City)' 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중세시대 모습을 잘 간직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새로 뜨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로마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이곳을 여행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1박을 하면서 천천히 돌아보는 '슬로 여행'을 만끽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오르비에또 역에 도착했을 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르비에또 역은 시골의 작은 역 같았고, 거대한 바위 절벽만이 우리를 맞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시가

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절벽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푸니꼴라레(Punicolare)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 안쪽에 동굴처럼 비스듬히 터널을 뚫어 만든 철도로 밖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흥미로웠다. 푸니꼴라레를 타고 올라가자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승객들을 타운의 중앙 두오모 광장까지 데려다주었다. 타운으로 올라가자 오르비에또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절벽 위의 타운은 중앙의 두오모 성당과 골목, 건물 등이 중세시대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오르비에또 전체 인구는 2만 명을 넘지만, 절벽 위 타운엔 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절벽 아래의 드넓은 평원과 구릉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작은 상점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차 있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수공업 제품과 기념품, 의류 등을 파는 상점, 작은 서점도 있었다. 전통을 간직한 작은 상점들이 빼곡하고 공동체가 살아있지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은 없다. 또 이곳에는 셔틀버스와 극히 일부 공용을 제외하고 자동차가 없다. 승용차는 모두 절벽 아래 주차장에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내친김에 국제슬로시티연합(Chitaslow International)까지 방문해 슬로시티 운동에 관해 물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기자 본능을 발휘해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방문했는데, 사무국 직원이 반가워하며 자세히 안내해주고 자료도 듬뿍 주어 이 운동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슬로시티 운동은 현대사회의 삭막한 음식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패스트푸드에 대항하는 단순한 먹거리 운동이 아니었다.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문화와, '삶의 질'을 위기에 빠뜨리는 성장만능주의, 속도와 편리성만을 좇는 현대의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한 총체적인 변혁운동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구체적인 대안 실천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국제슬로시티운동 선언문의 다음 문구는 뇌리에 오래도록 남았다.

"오로지 깨어있고 공부하는 시민들과 공동체만이 '슬로'를 채택하고 높은 삶의 질을 선택할 것이며, 그것이 위기의 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다."

'풍요의 시대'에 되살아난 프란체스코의 가르침

아시시는 로마와 피렌체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로, 기독교의 성인 프란체스코가 태어나 성직자로 활동한 곳이다. 이곳 역시 중세의 골목과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2000년대 이후 이색적인 것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곳이다.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제266대 교황에 선출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아시시 역에서 구시가지의 아시시 성당까지는 약 3km 거리로 보통 버스로 이동하지만, 우리 가족은 막 피어나는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막 싹을 틔우는 나무와 들판, 밀밭 사이에서 농부들은 밭을 고르고, 집을 손질하고, 밭 주변 나뭇가지를 치느라 분주했다. 아시시 역시 반나절 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곳이지만, 어느 곳보다 울림이 큰 곳이었다. 프란체스코는 중세 기독교의 전성기인 12세기 말에 태어나 허영에 휩싸인 기독교를 비판하며, 청빈과 검약, 절제의 덕목 아래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소박한 삶'을 실천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광풍이 몰아칠 때 '모든 사람이 형제'라며 이슬람교도들에 대해서도 "정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직접 사라센으로 가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 지금으로 보면 그저 혁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선 '이교도'로 매도당할 수 있는 혁명적 사상이었다. 성당에는 그의 묘지와 함께 유품도 보존되어 있다. 화려한 중세 성직자들의 의상과 대조적인 누덕누덕 기운 옷은, 그의 검소한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풍요와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그가 가르친 것은 작지만 위대한 힘을 가진 '실천'의 중요성이었다. 그가 권력과 재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곡괭이를 들고 밭을 직접 일구며 복음을 전파했기에 나중에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원대한 이상과 목표가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 아니겠는가. 작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사회를 구할 수 있다.

별생각 없이 아시시나 오르비에또를 방문했다면 그저 아름답고 낭만적인 중세 마을 정도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을들이 어느 거창한 유적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두 곳 모두 작지만, 가치 있는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가족이 관광지 중심의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찾는 여행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보람을 남긴 여정이었다.

아시시 성당과 순례자 조각상. 이곳을 지나던 순례자가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하다.